

C2001 2형 채권형(VUL)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2형 채권형(VUL)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2형 채권형(VU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6009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10.04
운용기간	2020.07.01 ~ 2020.09.30	종속기간	취항으로 별도의 종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자본이득과 이자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2형 채권형(VUL)	자산 총액 (A)	490	493	0.64
	부채 총액 (B)	0	0	-39.21
	순자산총액 (C=A-B)	489	493	0.66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310	311	0.58
	기준가격 (E=C/D×1000)	1,580.96	1,582.23	0.08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3분기 채권시장은 상반기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진 가운데, 박스권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공조 속에서 4차 추경 우려로 인한 장기채권 발행 공급 부담으로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3.3%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역성장률 기록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추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하단에 근접함에 따라 추가 인하보다는 시장 변동성 확대 시 국제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신중론을 펼치면서 시장 내 통화정책 기대감은 다시 약화되었습니다.

미 연준은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며 경기 회복까지 상당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경기 부양에 있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적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내에도 낮아진 통화정책 기대감 속 내년도 추가 재정 확대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 우려, 8월 중순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4차 추경 논의 등으로 수급 부담 높아지면서 국내 금리는 9월 초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한은이 연말까지 5조 규모의 국제 매입안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인 국채선물 순매수로 전환하며 금리 상승 폭을 일부 되돌렸으나, 결국, 국고 5년물 금리는 전분기말 대비 1.5bp 하락한 1.10%에 마감하였지만, 추경에 따른 장기물 발행 부담이 완벽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10년 금리는 4.2bp 상승한 1.427%로 마감하였습니다.

3분기 펀드는 수익률은 장기채권 위주의 제한적 금리 상승에도 소폭 플러스 성과를 시현했습니다. 박스권 국면에서 유연한 듀레이션 대응으로 듀레이션과 만기 선정에서는 우호적인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회사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했음에도 회사채의 상대적 강세로 인해 섹터에서는 비우호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단기적으로 펀더멘탈 재료 보다는 1) 미 대선 후보 3차 토론 과정에서의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 추이, 그리고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 장악 여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2) 코로나 백신의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둔 진행 상황과 3) 9월 이후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의 조정 국면 이후의 반등 지속 여부 등 대외 변수가 중요할 것일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의 금리 경로는 전약후강(상고하저) 전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블루웨이브, 즉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상하원 장악까지 하는 시나리오를 선반영 한다며, 주식 강세, 채권 약세, 달러 약세 흐름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고채 10년 금리 기준 1.30~1.60% 박스권 대응을 할 예정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분기초에는 바이든 당선 및 상하원 장악 가능성을 선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장기물 위주의 금리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공격적으로 듀레이션을 확대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미국 10년 기준 0.90%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되, 금리 상승은 위험자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트럼프의 대선 불복 등의 미국 대선 불확실성,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 등의 리스크와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을 감안, 4분기 중후반에는 금리 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것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2형 채권형(VUL)	0.08	0.97	1.67	1.30
(비교지수 대비 성과)	(-0.38)	(-0.71)	(-0.89)	(-1.19)
비교지수(벤치마크)	0.46	1.68	2.56	2.49

※ 당 펀드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비교지수(벤치마크)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준) 국고채 3-5년 5%, 국고채 5-10년 25%, 특수채 2-3년 5%, 특수채 3-5년 30%, 은행채 AA-이상 1-2년 5%, 기타금융채 AA-이상 1-2년 5%, 기타금융채 AA-이상 2-3년 5%, 회사채 AA-이상 1-2년 5%, 회사채 AA-이상 2-3년 5%, CALL 10%

(변경) KIS종합채권지수(T-1)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형 채권형(VUL)	1.30	4.68	6.11	7.42
(비교지수 대비 성과)	(-1.19)	(-1.83)	(-2.76)	(-4.61)
비교지수(벤치마크)	2.49	6.51	8.87	12.03

※ 당 펀드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비교지수(벤치마크)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준) 국고채 3-5년 5%, 국고채 5-10년 25%, 특수채 2-3년 5%, 특수채 3-5년 30%, 은행채 AA-이상 1-2년 5%, 기타금융채 AA-이상 1-2년 5%, 기타금융채 AA-이상 2-3년 5%, 회사채 AA-이상 1-2년 5%, 회사채 AA-이상 2-3년 5%, CALL 10%

(변경) KIS종합채권지수(T-1)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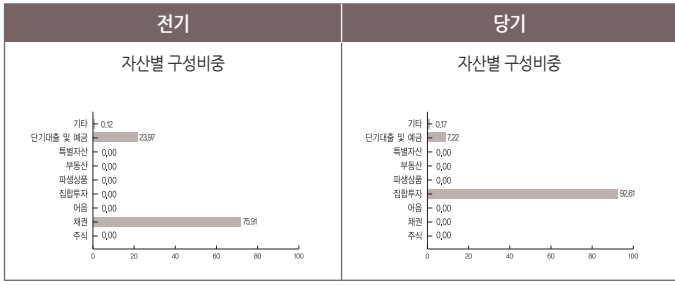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0	5	0	0	0	0	0	0	0	0	-1	5
당기	0	2	0	-1	0	0	0	0	0	0	-1	0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0	0	0	456	0	0	0	0	0	36	1	493
	(0.00)	(0.00)	(0.00)	(92.61)	(0.00)	(0.00)	(0.00)	(0.00)	(0.00)	(7.22)	(0.17)	(100.00)
합계	0	0	0	456	0	0	0	0	0	36	1	493

※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변액보험채권증권 투자신탁(채권)	92.61	6		
2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7.22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미래에셋변액보험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	채권형	456	456	대한민국	KRW	92.61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36	0.23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1	78	2,505,667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8	78	2,505,667			2119000109
김태현	과장	37	78	2,505,667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505,667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2	0	0.01	
판매회사	1	0.10	0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	0.12	1	0.11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 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식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891	0	0.4891
당기	0.4774	0	0.4774

※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2형 채권형(VUL)'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사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